

# 露梁海戰과 이순신 戰死 狀況에 관한 고찰\*

제 장 명\*\*

1. 머 리 말
2. 노량해전의 경과
3. 이순신 전사 상황 분석
4. 맺 음 말

## 1. 머 리 말

露梁海戰은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이다. 이 해전에서 李舜臣이 지휘한 조선 수군과 陳璘이 이끈 명 수군은 연합작전을 수행하여 일본군에 대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이 해전에서 수군 통제사 이순신은 戰死하였다.

기존 노량해전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추진되지 못했다. 그것은 임진왜란 시기 다른 해전에 비해 사료의 부족에 기인한 면이 크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임진왜란 초기의 해전에 관해서는 이순신의 기록들이 풍부하게 남아 있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노량해전에 관한 기록은 몇 가지 문헌에

\* 이 글은 2010년 10월 8일에 (사)남해역사연구회가 주관한 '충무공이순신장군 윤구행렬 경로 및 장례의례 전국대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해군충무공 리더십센터 연구원

단편적인 내용들만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도 기술자의 편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인용된 면이 있다. 그러다보니 노량해전의 의미에 대해서도 세간에 잘 알려지지 못한 면이 있다.<sup>1)</sup>

노량해전에 관한 기존 연구현황을 보면 먼저 임진왜란 시기 전투사례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李炯錫의 연구가 있다.<sup>2)</sup> 그리고 이순신의 일대기를 다룬 대다수의 논저에 그의 죽음과 관련하여 노량해전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가 있다.<sup>3)</sup> 그러다가 개별 논문 형태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sup>4)</sup>

이와 같이 최근까지도 노량해전에 관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졌고, 심도있는 연구가 부족했다. 다만 수년전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방영을 계기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노량해전은 민족의 영웅인 이순신이 전사한 해전이다 보니 노량해전의 경과뿐만 아니라 이순신의 죽음에 대한 관심과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이순신의 죽음에 관해서는 대다수 학자들은 전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sup>5)</sup> 일부에서는 그의 자살설과 은둔설까지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4~2005년에 방영된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영향으로 인해 이순신은

1) 노량해전은 이미 조선시대에도 매우 높게 평가된 바 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임진왜란 3대첩(한산대첩, 진주성대첩, 행주대첩)과 다르게 조선 숙종대 예조판서였던 조상우(趙相愚 : 1640~1718)는 예조 회계를 통해 임진왜란 3대첩 중 첫 번째로 이순신의 노량대첩을 꼽기도 하였다(李廷穉, 『四留齋集』 권72(1736년 간) 附錄 下, 「禮曹回啓時判書趙相愚」, “慨壬辰之亂 有三大捷 一則乃李舜臣露梁之捷也 一則乃權慄幸州之捷也 一則李某延安之捷也.”)

2) 李炯錫, 『壬辰戰亂史』 하권,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4, 1117~1129쪽.

3) 많은 이순신 일대기 중 노량해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한 것은 최석남의 저작(『구국의 명장 이순신』(상, 하), 교학사, 1992)이 주목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명 수군의 전선 척수가 맞지 않고, 이순신의 자살설에 초점을 맞추어 해전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4) 기존 노량해전과 연관된 연구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조원래, 「정유재란과 순천왜교성 전투」 『아시아문화』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 한명기, 「정유재란기 명 수군의 참전과 조명연합작전」 『軍史』 38, 국방군사연구소, 1999 : 이민용, 「조명연합함대의 형성과 노량해전의 경과」 『역사학보』 178, 역사학회, 2003 : 제장명, 「정유재란기 노량해전 연구」 『해양연구논총』 제40집, 해군전투발전단, 2008.

5) 이순신 전사 상황에 관해 분석한 논문은 장학근의 연구 성과가 유일하다(장학근, 「충무공 이순신의 下獄罪名·戰歿狀況·自殺論·殉國論에 관한 검토」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 해군군사연구실, 대전, 1993).

노량해전 때 갑옷을 벗은 채 일부러 적탄을 맞았다는 인식이 대중들에게 확산되어 있는 상태이다.<sup>6)</sup> 이와 아울러 소수이긴 하지만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후 비로소 사망하여 현재의 어라산 묘소에 안장되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sup>7)</sup>

이러한 인식들은 노량해전과 당시의 사회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면과 함께 정치적 역학관계와 사료해석을 자의적으로 한 결과로 보아진다.<sup>8)</sup> 이와 더불어 민족의 영웅이 마지막 해전에서 전사한 것에 대한 불신의 심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면도 있다.<sup>9)</sup>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기존의 인식들 중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혀서 이순신 죽음에 관한 세간의 오인을 불식시키는 방편으로 삼고자 한다.

위의 목적으로 본고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집중하면서 노량해전의 경과와 이순신의 전사 상황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이순신의 전사 상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10)</sup>

첫째, 이순신이 전사한 위치가 어디쯤인지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격전지역 또는 전사한 해역이 노량수로인가? 또는 관음포 입구 해상인가? 아니면 관음포 내부 깊숙한 곳인가? 등 격전지역에 대한 명확한 검

6) 대표적으로 소재영은 이순신의 죽음이 전사가 아닌 자살이었다는 점을 많은 문학작품 속에서 제시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蘇在英, 「英雄傳承의 文學的 形象化」 『崇實語文』 제2집, 22~26쪽).

7) 은둔설에 관해서는 주장자가 소수이고 사료해석에 오류를 보임에 따라 여기서는 그 주장의 요지에 대해 생략한다(남천우, 『이순신은 전사하지 않았다』 미다스북스, 2004 : 『평역 이순신 자서전』 미다스북스, 2006).

8) 예컨대 드라마에서 이순신과 선조의 갈등관계를 극의 중심적 흐름으로 전개한 것은 당시 충효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이념과 사회제도 하에서 발생할 수 없는 군신관계를 설정한 것이다.

9) 이러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이은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난 7년간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이순신이 마지막 해전에서 몸을 피하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둘째, 갑옷을 벗고 앞장서 싸웠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왜 이순신이 선봉에서 그렇게 싸우다 총탄을 맞았을까. 셋째, 당시 조정은 부패와 시기, 질투가 난무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둔 후에는 참혹한 죽음을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목숨을 버린 것이라는 점 등이다(이은상, 『완역 이충무공전서』 (하), 성문각, 1992, 166쪽).

10) 노량해전의 구체적인 경과와 의미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 성과 참조.

토를 하고자 한다.<sup>11)</sup>

둘째, 이순신의 전사와 관련한 상황에 대한 해석문제이다. 이순신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전사했는가? 피격 시 무기가 무엇이었는지 여부와 이순신은 전사 당시 갑옷을 착용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이순신의 전사 후 상황처리를 누가 담당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실제 이순신이 전사한 후 상당 시간 동안 이순신의 遺訓에 따라 전투의 마무리를 잘한 덕분에 대첩을 이룩한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이순신이 전사한 이후 휘하 세력들을 이끌어 마무리 전투를 지휘한 인물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순신의 전사 후 운구는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노량해전의 의미를 재인식하고 이순신의 전사와 이후의 행적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보아진다.

## 2. 노량해전의 경과

### (1) 노량해전 직전의 전황

#### 1) 四路竝進作戰과 朝明 水軍의 연합

임진왜란 마지막 해인 1598년에는 일본군들이 남쪽에 내려와 해안가에 축성하고는 장기 농성전에 돌입하고 있었다. 이때 조명연합군은 네 군데 길로 나누어 일본군을 공격하는 이른바 四路竝進作戰을 추진하게 되었다.<sup>12)</sup> 그리하여 그해 6월부터 이를 위한 군별 이동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11) 이순신의 순국해역은 지난 2005년 남해군에서 추진한 순국해역 조사활동의 결과 필자가 제시한 관음포 입구 부근으로 상정한 바 있다. 필자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기하고자 한다.

12) 사로병진작전은 정유년 12월의 울산성 공략작전이 끝난 후 명의 경리 양호가 제시한 것이다(諸葛元聲, 『兩朝平攘錄』(國學資料院, 1992 『壬辰之役史料匯輯』影印本), 163~166쪽).

당시 일본군이 주둔해 있던 울산, 사천, 순천지역의 왜성을 조명연합군이 네 군데 길로 나누어 공격하는 전략이었다. 이를 동로·중로·서로·수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동로는 제독 麻貴가 조선의 경상좌병사 金應瑞군과 연합하여 울산성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 가토오 키요마사(加藤清正)군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중로는 제독 董一元(초기에는 李如梅)이 조선의 경상우병사 鄭起龍군과 연합하여 사천의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군을 공격하는 작전이었다. 서로는 제독 劉綎이 조선의 도원수 權慄군과 연합하여 순천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군을 공격하는 것이었고, 수로는 陳璘이 조선의 통제사 李舜臣이 이끄는 수군과 연합하여 순천의 고니시군을 협공한다는 것이다(〈그림 1〉 참조).<sup>13)</sup>



〈그림 1〉 조명연합군의 사로병진작전도

13) 사로병진작전에 대해서는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260~261쪽 참조.

이러한 작전지침 하에서 먼저 서로군의 육군장 유정은 휘하 2만 5천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1598년 7월 12일에 한양을 떠나 전라도로 남하하기 시작하였다.<sup>14)</sup> 한편으로 서로군의 제독 유정의 伺候 임무를 부여받은 우의정 李德馨이 7월 20일에 전라도로 내려갔다.<sup>15)</sup>

한편 수로군의 경우 비슷한 시기인 7월 16일에 진린이 거느린 명 수군이 조선 수군이 주둔하고 있던 고금도 통제영에 합류하였다. 이로부터 본격적인 조명 수군간의 연합작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명 수군의 본대가 도착한 이틀 뒤인 7월 18일 일본 군선 100여척이 녹도를 침범한다는 정보를 얻고 이순신과 진린은 각각 전선을 거느리고 금당도(고흥군 금일면 금당도)로 나갔다. 그리고 다음날인 7월 19일 새벽에 적선 1백여 척이 조선 수군을 급습해 오자 이순신은 절이도 부근에서 함대를 지휘하여 적선 50여척을 불태웠다.<sup>16)</sup> 이를 흔히 折爾島海戰이라고 부른다.

이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적 수급 70급을 베었는데 진린은 후방의 안전지대로 물러나 있음에 따라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 이에 진린이 대노하여 행패를 부리자 이순신은 진린에게 수급 40여 급을 보내고 유격 季金에게도 5급을 보내어 이들의 불만을 해소시켰다.<sup>17)</sup>

이와 같이 명 수군 도독 진린은 군공에 매우 집착하여 조선 수군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가하였다. 절이도 해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린은 전투에 있어서 관망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軍功에는 강한 집착을 보임으로써 조선 수군에 대하여 상당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로병진작전의 본격적인 시작은 일시 한양에 올라 와 머무르고 있던 삼로의 대장인 제독 마귀, 동일원, 유정이 8월 18일에 한양을 떠나면서

14) 『宣祖實錄』 권102, 31년 7월 12일 을미.

15) 『宣祖實錄』 권102, 31년 7월 20일 계묘.

16) 趙慶男, 『亂中雜錄』 권3, 戊戌年 7월: 『宣祖修正實錄』 권32, 선조 31년 8월조에 “舜臣自領水軍 突入賊中 發火砲 燒五十餘隻 賊遂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李忠武公全書』에는 위 기록과 달리 이순신이 금당도에서 경야하지 않고 녹도 만호 송여종에게 전선 8척을 주어 잠복케 한 후 일단 고금도로 물러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필자는 실록에 근거하여 채택하였다.

17) 『宣祖實錄』 권103, 선조 31년 8월 정사 및 병인조.

부터였다.<sup>18)</sup> 그동안 군량문제 해결 등을 위해 명에 일시 귀국했던 군문 邢价가 한양에 도착함에 따라 사로 중 삼로의 제독이 일시에 한양으로 돌아와 다시 군문 형개의 지휘를 받아 일본군 세 소굴에 대한 거사일자를 정한 것이었다.<sup>19)</sup>

이러한 시점에서 서로군과 수로군의 상황을 살펴보자. 당시 서로군의 대장 유정 제독은 남원에 도착하여 고니시의 강화요청을 받고는 강화하는 척 하면서 사로잡을 계책을 강구하였다. 이를 살펴 본 이덕형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고 평가하였다.<sup>20)</sup> 그리고 그것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그런데 당시 수로군의 경우 진린은 이순신의 공격작전을 자주 제지하였다. 그에 따라 예교성의 일본군에 대한 협공작전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노정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선조는 군문 형개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알리도록 하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진린을 육군의 한 지역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정보를 흘리도록 하자고 지시하였다.<sup>21)</sup> 이러한 방책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드러날 경우 우리 수군이 먼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다른 방책을 제시하였다. 이를테면 유정이 예교를 공격함에 있어서 육군과 수군에 대한 호령이 통일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유정이 수군까지도 절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군문 형개에게 전달하자고 하였다.<sup>22)</sup>

이러한 논의가 실행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이순신의 다음의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진도독이 신을 불러 '육군은 유제독이 총괄하여 통제하고 수군은 내가 당연히 총괄하여 통제해야 하는데 지금 든건대 유제독이 주사를 관장하려 한다하니 사실인가?' 하기에 신은 모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신이 주사를 정돈하여 바

18) 『宣祖實錄』 권103, 31년 8월 18일 신미.

19) 趙慶男, 『亂中雜錄』 3, 무술년 8월조.

20) 『宣祖實錄』 권104, 31년 9월 7일 을축.

21) 『宣祖實錄』 권104, 31년 9월 8일 경인.

22) 위의 책, 같은 조.

다로 내려가서 기회를 틈타 왜적을 섬멸하려 하여도 매번 도독에게 중지 당하니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sup>23)</sup>

이러한 움직임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진린이 통합 지휘권을 가진 조명 수군은 드디어 예교성에 대한 공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 2) 曳橋城 水陸合攻戰의 전개

예교성 수륙합공전을 살펴보기 전에 당시(1598년 9월 하순) 사로의 병력 현황과 일본군 주둔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조명연합군의 병력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사로병진작전 시 조명연합군의 병력 현황

구 분	명군	조선군(무술년10월 현재)	병력합계
동로군	24,000명	5,514명	29,514명
중로군	26,800명	2,215명	29,015명
서로군	21,900명	5,928명	27,828명
수로군	19,400명	7,328명	26,728명
합 계	92,100명	20,985명	113,085명

※ 출처 : 『宣祖實錄』 권105, 31년 10월 12일 갑자.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로병진작전에 참가하는 명나라 병력은 모두 92,100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선군은 모두 20,98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명 수군은 19,400명으로 드러나고 있다.<sup>24)</sup> 그런데 특기할 것은 조선 수군의 수가 7,300여명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명량해전 직전의 약 2,000명의 수준에서 무려 5,300여명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를 전선 척수로 계산해 볼 때 명량해전 때의 13척의 판옥선을 보유했을 때와 비교해 본

23) 『宣祖實錄』 권104, 31년 9월 10일 임진.

24) 명 측의 기록에는 진린 휘하의 병력을 1만 3천여 명으로 언급하고 있다(諸葛元聲, 『兩朝平攘錄』, 178쪽). 이것은 진린이 고금도에 합류한 직후의 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병력이 늘어나 노량 전후에는 2만명 정도의 명 수군이 참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면<sup>25)</sup> 판옥선 정원을 평균 130명으로 추산할 경우<sup>26)</sup> 7,300여 명의 수군이 승선하려면 모두 56척의 판옥선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판옥선 정원을 완전히 채웠을 경우에 해당된다. 실제로는 판옥선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것으로 보며 無軍船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때 조선 수군의 전선은 약 70척 정도로 추산한다.<sup>27)</sup>

한편 일본군은 조선의 남부 지방에 내려와 성을 쌓은 채 주둔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명연합군의 압박에 의해 수복되지 않은 곳은 경상좌도의 울산·양산·동래와 경상우도의 김해·창원·웅천·고성·거제·진주·사천·곤양·남해지역 및 전라좌도의 순천뿐이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병력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좌도의 경우 2만 2천~2만 5천여 명, 경상우도는 3만 1천~3만 4천여 명 정도, 전라좌도의 경우 1만 5천여 명으로 모두 6만 8천명~7만 9천명으로 추산된다.<sup>28)</sup> 여기서 그 주둔현황을 알 수 없는 창원부와 웅천현의 일본군 병력을 포함한다면 8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중·서로와 수로의 공격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중 노량해전의 배경이 되는 예교성 수륙합공전을 중심으로 당시의 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교성은 왜교성이라고도 하며 순천 동남쪽 25리 되는 곳에 있었다. 이 성은 정유년 겨울 중에 일본군의 우키다 히데이에(宇喜多秀家), 토오도오 다카도라(藤堂高虎) 등이 신축한 것이다.<sup>29)</sup>

25) 명량해전 때 13척의 판옥선과 함께 32척의 초담선을 보유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초담선의 경우 승선인원이 겨우 4~5명에 불과하므로 여기서는 무시한다.

26) 임진왜란에 중군했던 나대용이 올린 상소문에 임진왜란 당시의 판옥선의 정원은 사수와 격군을 합하여 125명이었다는 기록이 있다(『宣祖實錄』 권206, 39년 12월 24일 무오). 그리고 임진왜란 시기 체찰부사로 활동한 한효순이 병선 한척에 사수와 격군을 합하여 136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宣祖實錄』 권85, 30년 2월 25일 병술). 따라서 판옥선의 정원은 130명 전후로 볼 수 있다.

27) 이러한 추정의 근거는 노량해전이 종료된 후 만 1년이 경과한 1600년(선조 33) 1월에 좌의정 겸 도원수 이항복이 당시의 전선 척수가 삼도를 합쳐 80여 척이라고 한 언급(『宣祖實錄』 권121, 33년 1월 29일 갑술)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노량해전 직후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20여 척 이상의 전선을 건조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의 결과 필자는 노량해전 직전에 이미 약 70척 정도의 전선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8) 『宣祖實錄』 권104, 31년 9월 28일 경술.

29) 李炯錫, 앞의 책, 1104쪽.

당시 예교성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수는 1만 5천명이고, 예교성의 형세는 3면이 바다로 둘러있어 1면만 공격이 가능한데, 땅이 질어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sup>30)</sup> 어쨌든 서로군과 수로군의 예교성 수륙합공은 9월 20일에 시작되었다. 서로군의 제독 유정은 대군을 거느리고 8월에 한성을 떠나 수원을 경유하여 전주로 내려간 다음 순천 예교의 적을 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전주에서 약 1개월간을 지체한 후 9월 19일 예교성 북쪽 근방인 富有에 진출하였다.

당시 조명 연합수군은 고금도를 출발하여 9월 15일에 나로도에 도착하여 3일간 머물다가<sup>31)</sup> 18일에 방답진을 거쳐 19일에 전라좌수영 앞에 정박한 후 20일 오전 8시경에 猫島에 도착하였다.<sup>32)</sup> 예교성 수륙합공 시 조선 수군은 柚島(현재의 송도로 추정)에 주둔하고 있었고, 명 수군은 묘도에 주둔하여 일본군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9월 20일 수륙합공전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서로군이 먼저 육지에서 공격하였다. 유정이 이끄는 서로군은 예교에 진격해 들어가서 성 밖 7~8리 지점에서 맞서 싸웠는데, 일본군이 퇴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3)</sup>

9월 21일에도 조명 수군은 예교성을 공격했는데, 물이 얇아 더 가까이 다가가 싸울 수가 없었다. 이러한 와중에 남해의 일본군 중 정탐선이 나타나자 이를 추격하여 빈 배를 노획하였다.<sup>34)</sup> 당시 남해의 일본군은 8백~9백 명이 주둔하고 있었다.<sup>35)</sup>

다음날인 22일에도 조명 수군은 예교성을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명군의 유격 계급이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는 부상을 당했고,<sup>36)</sup> 명의 군졸

30) 『宣祖實錄』 권104, 31년 9월 23일 을사.

31) 『亂中日記』, 무술년 9월 15일 : 9월 16일 : 9월 17일 기사.

32) 『亂中日記』, 무술년 9월 20일 기사.

33) 『宣祖實錄』 권104, 31년 9월 24일 병오 : 『亂中日記』, 무술년 9월 20일 기사.

34) 『亂中日記』, 무술년 9월 21일 기사.

35) 『宣祖實錄』 권104, 31년 9월 23일 을사.

36) 우의정 이덕형의 보고에 의하면 유격 계급은 오른쪽 팔에 탄환을 맞았으며 중상에 이르지는 않았고, 탄환에 맞아 죽은 명나라 군사는 숫자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宣祖實錄』 권105, 31년 10월 1일 계축).

11명이 탄환에 맞아 전사하였다. 조선 수군도 지세포만호와 옥포만호가 총상을 입었다.<sup>37)</sup>

그리고 9월 30일에는 명 수군의 참장 王元周와 유격장 福日昇, 그리고 파총 李天常 등이 함선 100여 척을 거느리고 와서 합세하였다.<sup>38)</sup>

한편 이 시점에서 울산의 도산성을 공격한 동로군은 제1차 도산성 전투 때와 같이 성을 포위했지만 1차 때와는 매우 다른 상황에 봉착하였다. 이를테면 성을 방어하기 위해 성 밖 주위에 垓子를 만들고 바닷물을 끌어 들여 사람이 건너지 못하게 함으로써 함락시키기가 쉽지 않게 된 점이다. 그리하여 제독 마귀가 이끈 동로군은 성 밖 30리 지점에 쌓아놓은 적군의 양식을 모두 불태웠을 뿐이었다.<sup>39)</sup> 그리고 9월 22일에는 일본군의 야간 습격에 의하여 명나라 군사 5명이 피살되고 1명이 사로잡히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sup>40)</sup>

명 제독 동일원이 이끄는 중로군은 9월 18일에 진주를 공격하고 여세를 몰아 진격하자 일본군의 무리 4백여 명이 성을 버리고 일본군의 주둔지인 新寨<sup>41)</sup>로 들어갔다. 여기서 어느 정도 전과를 거둔 조명연합군은 이후 9월 28일에 사천성을 포위하였다. 동일원은 시마즈가 지키고 있던 사천 신채를 우습게 보고 10월 1일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10월 2일에 진격하여 대포로 성문을 부수고 쳐들어가려고 할 무렵 유격 茅國器의 진영에서 실수로 화약에 불이 일어나 진중이 소란하자 일본군이 성안에서 나와 공격하고 사방에서 복병이 덮쳤다. 이로 인해 중로군은 허둥지둥 무너져 사망한 숫자가 거의 7천~8천명이나 되어 제독 동일원은 진주로 후퇴하고 말았다.<sup>42)</sup>

중로군의 패전 소식을 들은 동로의 제독 마귀는 전의를 상실하고는 경주

37) 『亂中日記』, 무술년 9월 22일 기사.

38) 『亂中日記』, 무술년 9월 30일 기사.

39) 『宣祖實錄』 권104, 31년 9월 27일 기유.

40) 『宣祖實錄』 권104, 31년 9월 30일 임자.

41) 일본군 시마즈군이 주둔하고 있던 성으로 범질도 왜성이라고도 부른다.

42) 『宣祖實錄』 권105, 31년 10월 8일 경신. 한편 일본 측 연구 성과(參謀本部, 『日本戰史 朝鮮役』 「本編」 1924, 401~405쪽)에는 전사가 38,700명으로 전과를 과장하고 있다.

로 후퇴하고 말았다.<sup>43)</sup> 이렇게 하여 중로군의 패전은 동로군의 후퇴를 불러옴으로써 두 군대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수로군의 경우 10월 1일에 도독 진린이 상륙하여 유정의 본영에서 같이 회의한 결과 이튿날 2일을 기하여 수륙 협동으로 총공격을 감행하기로 약속하였다.

서로군의 유정은 10월 2일 예교를 공격할 때 모든 군사가 성 아래로 60보쯤 전진했는데, 일본군의 총탄이 비오는 듯하자 제독은 끝내 깃발을 내려놓고 독전하지 않았다. 반면에 같은 날 수군의 경우 혈전을 벌였다. 육지에서 유정의 육군이 공격을 주저함에 따라 예교성의 일본군은 수군에만 공격의 초점을 맞추었다. 조명 수군은 혈전을 거듭함으로써 일본군의 시체가 언덕 밑에 낭자하게 흩어져 있었으며 혹은 쌓여 있기도 할 정도였다. 이 전투에서 많은 적을 살상하였지만 조선 수군의 전사자도 29명이었고, 명군의 사망자도 5명이 발생하였다.<sup>44)</sup>

이튿날인 10월 3일에는 수군이 조수를 타고 혈전하여 大銃으로 고니시의 막사를 맞추자 일본군이 놀라고 당황하여 모두 동쪽으로 갔는데, 만약 서쪽에서 공격하여 들어갔다면 성을 함락시킬 뻔 하였다. 유정 집반사 金睟가 문을 열어젖히고 싸우자고 청하였지만 유정은 노기를 띠고 끝내 군대를 출동시키지 않았다. 이로써 마지막 서로군마저 패퇴함으로써 사로병진작전 중 육로의 삼로군은 모두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다음 날인 10월 4일에도 조명 수군은 종일 역전하여 적에게 피해를 입혔다.<sup>45)</sup> 서로군과 함께 예교성에 대한 수륙합공작전을 수행했던 조명 수군은 유정의 육군이 10월 7일에 퇴군함으로써 3일간 정세를 관망하다가 철수하여 나로도에 도착하여 진을 치고 사면에 대비하였다.<sup>46)</sup> 이러한 예교성 수륙합공의 결과를 표시하면 다음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3) 『宣祖實錄』 권105, 31년 10월 10일 임술.

44) 『宣祖實錄』 권105, 31년 10월 13일 을축.

45) 『亂中日記』, 무술년 10월 4일 기사.

46) 『宣祖實錄』 권105, 31년 10월 27일 기묘.



정보가 입수되면서부터였다. 이러한 정보는 무술년 전반기부터 소문으로 전해져 왔지만, 실제 도요토미가 사망한 날짜는 1598년 8월 18일이었다. 이로써 도요토미의 유훈을 받은 五大老는 조선에서의 철군을 결정하고 이 방침을 조선에 출병해 있던 제장에게 ‘和議를 성립시키고 11월 중순까지 귀국하라’는 명령으로 전달하였다.<sup>48)</sup>

이러한 정보가 입수되자 수로군과 서로군의 수뇌부는 다시금 예교성 공격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1월 8일에 이순신은 도독 진린과 밀담하여 예교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다음날인 초9일부터 연합함대는 다시 출동하게 되어 백서량(여수군 남면)에 결진하였으며 10일에는 좌수영 전양에 이르렀고, 11일에는 다시 유도에 도착하여 결진하였다.

한편 일단 순천 예교성 공격에서 부유로 물러났던 유정은 다시 예교성 공격을 위해 11월 1일 출발하였다. 유정은 부유에 군사를 집결시키고 고니시와 화의를 의논한 끝에 인질까지 보냈다. 그리고 11월 18일에 유정은 뚝 宗道와 항왜 등과 서로 의논한 다음 고니시와 화의를 맺도록 하였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뇌물을 받게 된 그는 金帛을 보내면서 고니시의 비위를 맞추면서 인질까지 바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고니시는 총검류와 인질을 그에게 보내고 그는 질관으로 기수 두 사람을 참장이라고 거짓으로 칭하게 하고 가정 30명을 이끌고 같이 가게 하였다.<sup>49)</sup>

이즈음 고니시는 유정제독과 진린도독에게 강화하자고 하면서 유제독에게는 수급 2천을, 진도독에게는 수급 1천을 보내줄 터이니 자기를 돌아가게 해 달라고 하였다. 진도독은 그 말을 믿고서 말하기를 “나에게도 수급 2천을 보내주면 보내줄 수 있다”고 하자 고니시는 날마다 예물과 주찬·장검 따위의 선물을 보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남해에 사위가 있는데 그와 만나 의논해야 하므로 사람을 보내어 불러오려고 하니 이곳의 배를 내보내주기 바란다.” 하자, 이순신이 말하기를, “속임수의 말을 믿어서는 안된다. 사위를 불러온다는 것은 구원병을 청하려는 것이니 결코 허락할 수 없는 일

48)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267쪽.

49) 이형석, 앞의 책, 1111쪽.

이다” 하였으나, 진린은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14일에 1척의 작은 배를 보냈는데 왜인 8명이 타고 있었다. 그 뒤에 이순신이 말하기를, “왜선이 나간 지 이미 4일이 되었으니 구원병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도 묘도 등지로 가서 파수하여 차단시켜야 한다.” 하였다.<sup>50)</sup>

이러한 진린의 행위에 대해 한탄한 이순신은 휘하 장령들과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순신 휘하 군관 송희립과 해남현감 유형은 이순신의 의견에 찬동하면서 일본군에 대한 각개격파의 내선작전을 세웠다. 그리고 이 뜻을 진린에게 알렸는데 진린도 깜짝 놀라 그제야 輕舟로써 연락하는 것을 허락하였던 자기의 무지를 자책하는 눈치였다.<sup>51)</sup>

한편 일본군의 여러 부대는 11월 11일에 철수를 시작키로 하고 시마즈, 소오 요시토시(宗義智), 다치바나 무네시게(立花宗茂) 등은 모두 그의 수성을 버리고 시마즈와 소오는 창선도에 집결하였고 다치바나 등은 거제도로 옮겨 대기하였다. 이들은 고니시가 철수하여 오는 것을 기다렸으나 그들이 예교에서 아군에 의하여 귀로를 차단당하여 늦어지게 된 것을 알자 18일에 시마즈, 소오, 다치바나 및 부산에서 오게 된 데라자와 마사나리(寺澤正成)와 다카하시 무네마스(高橋統增) 등이 함선 약 5백 척을 이끌고 남해도에서 야조를 이용하여 노량해협을 지나서 예교로 부원키로 하였다.

## 2) 해전의 경과

이날 조명 수군은 적을 노량부근에 맞아 싸우기로 하고 유도를 떠나서 묘도에 육아간 뒤 밤 10시경에 진린은 부장인 鄧子龍과 통제사 이순신을 선봉으로 삼고 진린 자신은 부장인 陳蠶, 유격장 季金, 福日昇, 王元周, 沈懋, 파총 李天常 등을 거느리고 그 뒤를 따라 나갔다. 앞 장에서 언급하였

50) 『宣祖實錄』 권107, 31년 12월 4일 을묘.

51) 이러한 상황과는 달리 당시 유정의 사후임무를 맡은 이덕형이 말하기를 “18일에 이순신이 진린에게 말하기를 ‘적의 구원병이 수일 내에 당도할 것이니 나는 먼저 가서 요격하겠다’고 하니, 진린이 허락하지 않았으나, 이순신은 듣지 않고 요격하기로 결정하고서 나팔을 불며 배를 몰아가자 진린은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따랐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宣祖實錄』 권109, 32년 2월 2일 임자).

듯이 당시 조선 수군의 세력은 관옥선이 70척 내외로 추정되며, 명 수군의 전선은 약 4백 척으로 추정된다. 한편 노량해전에 참전한 조선 수군의 주요 장령과 명 수군의 주요 장령 현황은 다음의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2> 노량해전 참전 조선수군의 주요 장령

직 책	성 명	직 책	성 명
삼도수군통제사	李舜臣	경상우수사	李純信
전라우수사	安衛	충청수사	吳應台
해남현감	柳珩	가리포첨사	李英男
낙안군수	方德龍	홍양현감	高得蔣
순천부사	禹致績	안골포만호	禹壽
당진포만호	趙孝悅	진도군수	宣義卿
사랑만호	金聲玉	강진현감	宋尙甫
사도첨사	李暹	제포만호	朱義壽
발포만호	蘇季男	군관	宋希立
군관	李彦良	경상우도조방장	裴興立
금갑도만호	李廷彪	당포만호	安以命
조라포만호	鄭公淸	미조항첨사	金應誠
장흥부사	田鳳		

※ 출처 : 이형석, 『壬辰戰亂史』(下), 1117쪽 ; 『宣祖實錄』 권101, 31년 6월 27일 경진.

<표 3> 노량해전 참전 명수군의 주요 장령

직 책	성 명	직 책	성 명	직 책	성 명
도독	陳璘	부총병	鄧子龍	참 장	王元周
부총병	陳巖	유격장	許國威	유격장	季金
유격장	沈懋	유격장	福日昇	유격장	梁天胤
유격장	馬文煥	유격장	張良相	과 총	李天常
과 총	沈理	중 군	陶明宰		

※ 출처 : 이형석, 『壬辰戰亂史』(下), 1117~1118쪽.

한편 사천성에서 동일원을 물리치고 창선도로 군사를 철수한 시마즈는 노약한 군사들과 잡혀가 있던 조선의 남녀들을 먼저 부산포로 보낸 다음 정병만을 무장케 한 후 노량해협을 향하여 항진하였다. 총 500여 척 중 시마즈가 거느린 선발대 300여 척이 먼저 노량수로에 진입하였다.

조명 수군은 11월 18일 밤 예교성의 고니시군에 대한 퇴로 차단작전을 변경하여 이날 밤 10시경 노량수로 좌단 쪽으로 이동하였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조명 수군은 이동하는 동안 은밀히 기동하여 일본군이 조선 함대의 이동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약 2시간에 걸친 이동 끝에 조명 수군은 이날 밤 자정 무렵 노량수로 좌단 쪽에 도착하였다. 이때 진린이 이끈 명 수군은 좌협이 되어 대도 북방의 죽도 부근에 포진하고, 이순신이 지휘한 조선 수군은 우협이 되어 노량수로 좌단부터 관음포 입구에 이르기까지 횡렬로 포진하였는데, 닳을 내리지 않고 응전태세로 대기하였다.<sup>52)</sup>

이윽고 한밤중이 지나서 척후선으로부터 경보를 받게 되었는데, 적의 대함대가 사천 남쪽에 있는 光洲洋(노량수로 동단의 외양)을 통과하여 서쪽 노량방면을 향한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북병장으로 나가있던 경상우수사 李純信도 일본군의 西航을 확인하여 급보하였으므로 좌우 양협은 일제히 노량수로를 목표로 항진하였다.

19일 새벽 2시경에 일본의 구원군이 노량수로 좌단에 도착하였다. 적 함대가 근접하여 오자 진린은 진격의 영을 내렸고, 이순신도 먼저 敵船列 중간을 돌파하여 들어갔다. 이때 명 수군은 호준포·위원포·벽력포를 일시에 쏘았고, 조선 수군도 각양 총통을 쏘면서 薪火를 던지고 火箭을 발사했다. 이에 일본군은 선수를 돌릴 새도 없이 부서지고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좌우 掩擊으로 화살을 빗발같이 쏘자 일본군은 당황하여 동요의 빛이 질었고, 일본 전선들 또한 제대로 전진하지 못했다.<sup>53)</sup>

전투가 진행되면서 이순신 휘하 막하장수들은 생사를 도외시한 채 적극

52) 趙慶男, 『亂中雜錄』 권3, 무술년 11월 19일조.

53) 李炯錫, 앞의 책, 1120쪽.

적으로 참전하였다. 예컨대 가리포첨사 이영남, 낙안군수 방덕룡, 홍양현감 고득장, 순천부사 우치적, 안골포 만호 우수, 사도첨사 이섬 등의 활약이 돋보였다.<sup>54)</sup>

한편 이 해전에서 이순신과 진린은 상호 상대방을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한때 이순신의 배가 적을 쫓아 더욱 적 함열 깊이 돌진할 때 적선이 좌우로 쳐들어와 포위하려 하자 진린의 배가 급히 달려와서 대포와 활로써 이 적선을 물리쳤다. 다른 한편으로 적이 진린의 배를 세 겹으로 포위한 채로 화살과 조총을 집중으로 쏘면서 그 배에 뛰어 올라 가려고 하였다. 이때 이순신과 우수, 이섬은 일본군의 배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진린의 배를 구원하였다.

명 수군의 부총병 鄧子龍은 70세의 노장으로, 조선의 판옥선 1척을 빌려 타고<sup>55)</sup> 전투에 임하여 수없이 많은 적을 죽였다. 그러다가 혼전의 와중에 뒤에서 쏜 명군의 포탄이 잘못 맞아 그가 탄 배 중앙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의 군사들이 한곳에 모여 불을 피하면서 싸웠다. 이때에 적병이 함상으로 뛰어 올라와 백병전을 벌인 끝에 등자룡도 드디어 중상을 입게 되고 부하들도 다수가 부상을 당하였다.

한편 이때 해상에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왔다. 바람을 등진 채 싸운 조 명 수군은 화공전을 구사하였다.<sup>56)</sup> 이에 적함에 불길이 솟아 바닷물도 붉 게 물들었는데, 그 와중에 경상우수사 李純信은 적선 10여척을 불태우는

54) 이형석, 위의 책, 1120~1121쪽.

55) 판옥선 승선 인원 중 15명은 조선 수군 중에서 차출하여 참전하였다(『宣祖實錄』 권109, 32년 2월 2일 입자).

56) 『宣祖實錄』(권107, 31년 12월 4일 을묘)에 기패관 주충의 보고에 의하면 '18일 4경에 여러 곳의 구원병이 크게 몰려와 드디어 대전이 벌어졌는데 포와 화살은 쓰지도 않고 불 통치만을 적선에 던져 2백여 척을 소각시켰다(十八日四更 諸處援兵大至 遂與大戰 無暇放砲射矢 只以包火投之於賊船 燒破二百餘隻)'는 기록이 있다. 또한 신흘(申欽)의 『象村集』 권56에는 "이에 중국군이 높은 위치를 이용하여 분통을 적선에 훌뿌리니 매섭게 불어오는 바람에 불길이 맹렬히 타고르면서 적선 수백 척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온 바다가 붉게 물들었다(天兵從高散噴筒於賊船 風急火烈 賊艘數百 頃刻煨燼 海波盡赤)."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기록들을 통해 불 때 바람을 이용한 화공전을 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명수군이 위치한 풍상쪽에서 바람을 이용한 화공전이 전투의 승리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전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명 장수들도 적극적으로 참전하였다. 유격장 계금은 예교성 전투에서 부상당한 왼편 팔을 동인 채로 바른 손에 미침도를 들고 적 7명을 참살하였다. 부총병 陳蠶은 진린의 배를 호위하면서 진격하여 호준포와 위원포를 쏘았는데, 적함에 명중하는 소리가 먼 바다에까지 들릴 정도였다.

이러한 격전이 지속되자 마침내 견디지 못하게 된 적은 드디어 도망치기 시작하여 관음포 내항을 외해로 오인한 가운데 몰려 들어가게 되었다. 이 때는 동이 뜨기 전이었는데, 이순신이 가장 선두에 서서 적을 몰아넣었고 해남현감 유형과 당진포만호 조효열, 그리고 진도군수 선의경과 사랑만호 김성옥의 배들이 그 뒤를 받쳤다.

관음포에 갇힌 일본함대는 조명 수군의 화포공격에 좋은 표적이 되었다. 조선수군의 여러 배에서는 지자, 현자, 승자의 각종 총통을 일시에 집중 사격하여 일본군은 패색이 짙었다. 포구 안에서 진퇴유곡에 빠진 일본군은 窮鼠反噬의 각오로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어 총 역습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혼전과 격전이 진행되던 중 어느새 날이 밝기 시작하였다. 관음포구 내에 갇힌 일본군과 후미의 용원군이 필사적으로 조선 수군에게 대응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이순신은 적이 쏜 총탄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다.<sup>57)</sup> 이순신의 죽음을 감춘 조선 수군 지휘부는 여세를 몰아 일본군과 치열한 교전을 계속하였다.

전투는 巳時(0900~1100시)까지 치열한 격전이 계속되다가 정오 무렵에 상황이 종료되었다. 조명 수군은 일본 군선 200척을 분멸시키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이 관음포 앞에서 치열한 격전을 벌일 때 고니시는 묘도 서쪽 해상을 통해 남해로 빠져 나가 도주하였다.<sup>58)</sup> 그리고 부산, 울산에서 오는 구원군과 합류하여 일본으로 건너가고 말았다.

57) 이순신의 전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으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58) 기패관 주충의 보고에 의하면 소서행장은 떠내려오는 물품과 하늘에 치솟는 화염을 보고서 구원병이 크게 패한 것으로 알고 외양으로 도망쳤다고 하였다(『宣祖實錄』 권107, 31년 12월 4일 을묘).

한편 당시 일본군의 동향을 살펴보자. 시마즈의 기함은 반파상태가 되어 창선도를 거쳐 더욱 동쪽으로 간신히 달아났다. 이때에 다치바나, 소오, 데라자와 등의 분전으로 겨우 거제도까지 철수하게 되었으나 퇴조에 밀려서 암초 또는 얇은 여울에 좌초한 배도 많았다. 시마즈의 부장인 키이레 세주노카미(喜入攝津守) 등은 격전 끝에 궤주하였는데, 군사 약 5백 명을 이끌고 배에서 바다로 뛰어 내려 半死半生으로 헤엄쳐서 남해도에 기어 올라갔다. 그들은 육로를 따라 船所里에 다달아 소오가 버리고 떠났던 空城 안으로 들어가 잠복하고 있다가 뗏목을 만들어 타고 창선도로 향하였다. 조명수군은 그들이 버리고 간 배를 모두 불태우고 포구를 봉쇄하였다.

### 3) 해전의 의미

노량해전에서 조명수군은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좌의정 이덕형의 장계에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덕형의 보고에 의하면<sup>59)</sup> 우리 장수들이 이순신을 포함하여 10여 명 전사했지만, 적선 300여 척 중 200여 척을 분멸시켰다고 하였다. 여기서 일본군선의 척수는 다른 자료에 의하면 5백 척으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3백 척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군 전체 척수는 5백 척이었지만 시마즈가 거느린 선발대 300척이 격전을 벌였으므로 이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덕형의 종사관 정혹은 “부서진 배의 판자가 바다를 뒤덮어 흐르고 포구에는 무수한 왜적의 시체가 쌓여 있었다.”<sup>60)</sup>고 하여 일본군이 크게 패한 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아울러 노량해전에서 공을 크게 세운 자에 대해서는 도원수 權慄의 보고를 토대로 살펴볼 수 있다. 이를테면 전투에 참가한 조선 수군의 장수 중 우치적·이섬·우수·유형·이언량의 공이 가장 컸으며, 전선 중에서는 이순신이 타고 있던 배가 가장 공이 컸다는 점을 보고하였다.<sup>61)</sup>

59) 『宣祖實錄』 권106, 31년 11월 27일 무신.

60) 『宣祖實錄』 권109, 32년 2월 2일 임자.

61) 『宣祖實錄』 권107, 31년 12월 18일 기사.

한편 근접전으로 치러진 전투였기에 조명 수군의 피해도 상당수 발생하였다. 노량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함평의 전선을 비롯한 4척이 침몰되었고, 명 수군은 등자룡의 전선을 포함하여 2척이 침몰되었다.<sup>62)</sup> 그러나 일본 수군은 무려 200여 척이 침몰되었고, 대다수 전선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며, 격전을 벌인 300여척 중 온전하게 도주한 적선은 50여 척에 불과하였다.

인명피해를 보면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조선은 이순신을 비롯한 10명의 장수들이 전사하였다. 아울러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조선 수군의 장졸들도 다수 희생되었다.<sup>63)</sup> 반면에 진린 휘하에서는 부총병 등자룡 및 陳鸞의 부장 陶明宰가 전사한 것이 확인된다.<sup>64)</sup> 하지만 상호 근접전으로 치러진 혼전과 격전이었기에 명 수군의 많은 장졸들도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군도 장수들만 30여 명이 전사하는<sup>65)</sup> 등 인명피해가 매우 컸음은 물론이다.

한편 노량해전에서 패해 배를 버리고 남해 섬에 상륙한 일본군은 대부분 섬의 산이나 늪지대로 들어갔는데, 명나라 군이 산에 불을 놓아 참획하였으므로 남해에 살던 조선 사람들마저 놀라 숨어버리고 한 사람도 산에서 내려와 안접하는 자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孫文或이 진린 도독에게 자세히 말하자 도독이 그제서야 금지시켰다.<sup>66)</sup>

이상에서 살펴 본 노량해전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우선 해전사적인 면에서 살펴볼 때 당시 조명연합군의 사로병진작전

62) 노량해전에서 조선의 전선이 얼마나 분멸되었는지는 자료 확인이 어렵다. 다만 趙慶男의 『亂中雜錄』에 우리나라 함평전선이 불탔다는 기록(我國船側咸平戰艦島賊所焚)과 일본측 자료인 『征韓錄』에 島津義弘이 명 전선 2척과 조선 전선 4척을 사로잡았다는 기록이 있다(此役義弘戰獲明戰艦二艘朝鮮戰艦四艘). 이를 토대로 조선 수군은 4척, 명 수군은 2척의 전선이 분멸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63) 18세기말에 작성된 『湖南節義錄』의 이순신 同殉·參佐諸公 144명 중 同殉諸이 58명인데 그중 21명, 약 36%가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였다(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2, 194쪽에서 재인용).

64) 諸葛元聲, 『兩朝平攘錄』, 183~184쪽.

65) 『宣祖實錄』(권106, 31년 11월 26일 정미)에 군문 형개가 선조 임금과 대화 중 “중로의 왜장 36명이 모두 죽었다.”는 언급이 있다. 이는 노량해전에 참가한 시마즈 요시히로의 장수급 인물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66) 위의 책, 같은 조.

중 유일하게 성공한 작전이었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다. 동로군과 중로군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고 서로군마저 제대로 전투에 활약을 하지 못했지만 수로군만은 노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둬으로써 유일하게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는 물론 조선 수군의 통제사 이순신의 전략적 판단과 전술구사가 기여한 바가 컸다. 이를테면 조선 수군이 미리 가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지 않았다면 일본의 구원군이 모두 당도했을 것이고 그랬을 경우 해전승리를 기약할 수 없었을 것이다.<sup>67)</sup>

아울러 임진왜란 7년전쟁의 마지막 해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침략국 일본에 대한 복수적 의미도 부여되었다. 수군의 군공평가에 인색했던 선조도 이번 노량해전의 의미에 대해 “해상에서의 승리는 왜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에 충분하였으니 이는 조금 위안도 되고 분노 풀린다.”<sup>68)</sup>라고 언급할 정도였다.

이외에도 노량해전에서 일본군에 대승을 거둬으로써 주변국들에게 조선 수군의 우수성이 크게 각인되었고, 동시에 명 수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sup>69)</sup>

나아가 이 해전에서의 큰 승리는 전쟁의 참상에 망연자실해 있던 조선백성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임진왜란 7년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극도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마지막 해전에서 대첩을 거뒀다는 소식은 적개심을 넘어 절망 속에 빠져있던 조선 백성들에게 한줄기 활력의 서광을 부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67) 노량해전 종료 후 기괘관 주충이 해전의 전황에 대해 보고하면서 “만약 며칠만 더 지체하여 사방의 구원병이 모여왔더라면 왜교의 일이 매우 위태로웠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宣祖實錄』 권107, 31년 12월 4일 을묘).

68) 『宣祖實錄』 권106, 31년 11월 29일 경술, “唯海上之捷, 足破賊膽, 此則稍慰洩憤矣.”

69) 한명기, 「정유재란기 명 수군의 참전과 조명연합작전」 『軍史』 38, 국방군사연구소, 1999, 49~53쪽.

### 3. 이순신 전사 상황 분석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사실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여기서는 이순신의 전사와 관련한 몇 가지 상황에 대하여 사료별로 수록된 기사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당대의 관찬사료인 『宣祖實錄』과 임진왜란 당대의 인물들이 기록한 문집류 중 『隱峯全書』<sup>70)</sup>, 『懲毖錄』<sup>71)</sup>, 『白沙集』<sup>72)</sup>, 『亂中雜錄』<sup>73)</sup>, 『孤臺日錄』<sup>74)</sup>, 『象村集』<sup>75)</sup>, 『行錄』<sup>76)</sup>, 『亂蹟彙撰』<sup>77)</sup> 등 9가지 사료들을 토대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후대의 기록들은 당대의 기록들을 모방한 면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 (1) 격전지 및 전사해역 추정

우선 격전지가 어딘가에 대해 각 사료별로 검토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조실록』과 『징비록』에는 노량도, 노량, 묘도 등지, 남해지경 등으로, 구체적인 위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비교적 상세한 기록을 남

---

70) 저자 안방준(安邦俊, 1573~1654)은 임진왜란과 정묘,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켰다.  
 71) 저자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은 임진왜란 시기 영의정과 도체찰사로 활동하였다.  
 72) 저자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은 임진왜란 시기 병조판서 등을 지냈다.  
 73) 저자 조경남(趙慶男, 1570~1641)은 임진왜란 시기 남원지역의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다.  
 74) 저자 정경운(鄭慶雲, 1556~몰연대 미상)은 정인홍의 문인으로 임진왜란 때 함양에서 초유사 김성일의 소모유사와 의병장 김면의 소모종사관 등으로 활약하였다.  
 75) 저자 신흠(申欽, 1566~1628)은 임진왜란 당시 종사관으로서 대명 관련 임무를 수행하였고, 인조 때 영의정을 지냈다.  
 76) 저자 이분(李芬, 1566~1619)은 이순신의 조카로 정유재란기에 이순신 휘하에 종군하면서 명군과의 외교업무를 담당하였다.  
 77) 신홍(申弘, 1550~1614)이 임진왜란 때의 경상도 사정을 기록한 책이다. 전란을 겪은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의 기록물들을 참고하고 견문한 바를 보태어 찬진한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체험기가 아니지만 당시의 기록물들을 서로 견주고 견문한 바를 꽤 이른 시기에 기록한 역사적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경상도 사적을 엄밀히 살피는 데 좋은 참고자료로 생각된다.

긴 『백사집』<sup>78)</sup>과 『행록』<sup>79)</sup>에는 노랑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은봉전서』<sup>80)</sup>와 『난중잡록』<sup>81)</sup>, 그리고 『상촌집』<sup>82)</sup>에는 관음포를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나머지 문집류에서는 위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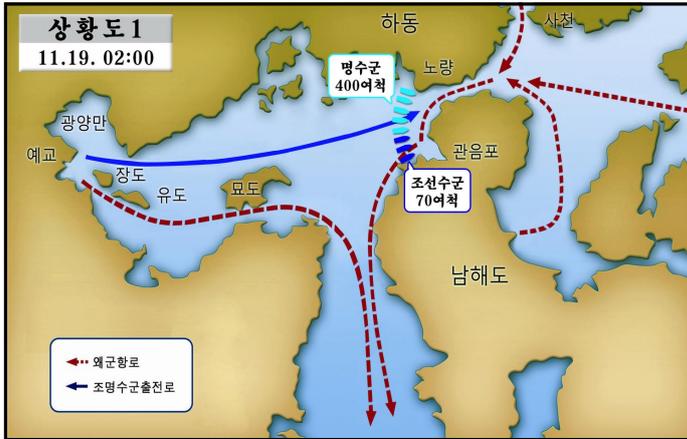
〈표 4〉 사료에 나타난 노랑해전 격전지역

사 료	격전지(전사 해역) 관련 언급 사항
『선조실록』	구체적인 장소 언급없이 노랑도, 노랑해상, 노랑 등으로 언급
『은봉전서』	관음포
『징비록』	남해지경(구체적인 위치 언급 없음)
『백사집』	노랑
『난중잡록』	관음포
『고대일록』	언급 없음
『상촌집』	관음포
『행록』	노랑
『난적휘찬』	언급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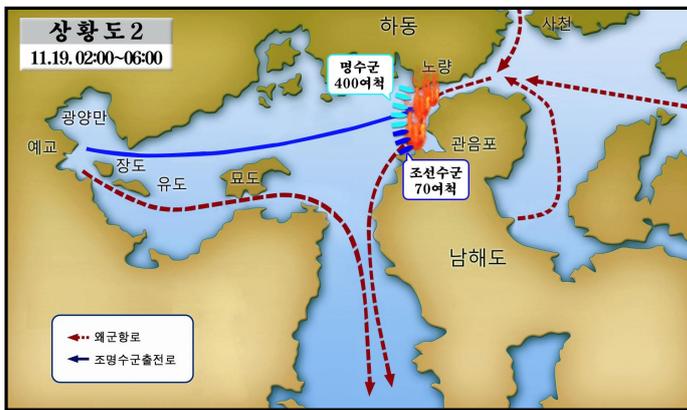
남해와 노랑이라고 사료에서 표시한 해전 장소는 넓게 보아 모두 남해와 순천예교성 사이의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해전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사료는 『은봉전서』와 『난중잡록』 그리고 『상촌집』이므로 이들 사료에서 표현한 관음포가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처음에는 〈그림 3〉 '상황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랑수로 왼쪽

78) 李恒福, 『白沙集』 권4, 碑銘, '統制使李公露梁碑銘', "其年冬 賊合勢大來 進至露梁 公自領銳師 先嘗其鋒 天兵夾進 與公犄角."  
 79) 『李忠武公全書』 권9, 李芬撰, 「行錄」, "十七日初昏行長舉火與南海賊相應蓋行長請援故昆陽泗川之賊來於露梁而應之云公勅令諸將嚴兵待之 十八日酉時賊船自南海無數出來依泊於嚴木浦又來泊於露梁者不知其數公約于都督是夜二更同發四更到露梁遇賊五百餘艘大戰至朝."  
 80) 安邦俊, 『隱峯全書』 권7, 「露梁記事」, "東賊已至於閒山前洋觀音浦 整齋鳥銃待我將發時天未明遙見火繩點點如列宿滿天."  
 81) 趙慶男, 『亂中雜錄』 권3, "賊兵殊死血戰勢不能支 乃退入觀音浦 日已明矣."  
 82) 申欽, 『象村集』 권56, "十九日夜賊船見於南海 李舜臣告都督 都督與季金前行 諸將繼之舜臣先導 出屯前洋 二十二日 賊船來犯前軍 舜臣擊敗之 焚其船五十餘隻 斬二百餘級 二十四日賊愁船來戰於觀音浦 戰酣行長乘船從外洋脫去."

부분에서 전투가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전투가 관음포 지역에 집중된 면이 있다. 이것을 다음 시간대별 상황도와 함께 살펴 본다.



〈그림 3〉 상황도 1(11.19. 02:00, 노량해전 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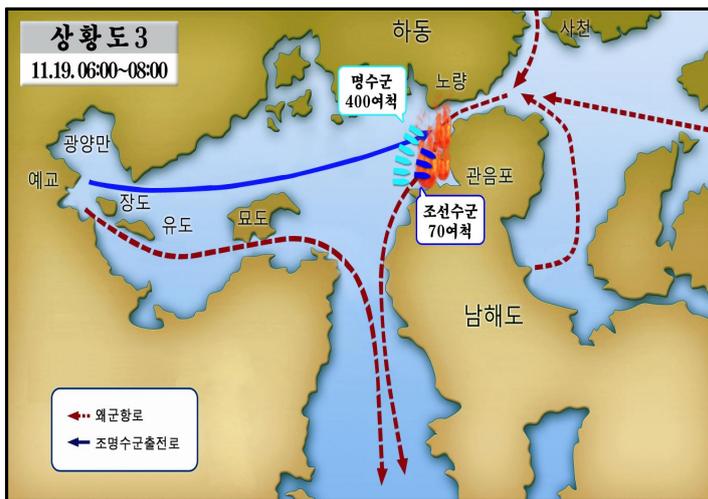
〈그림 4〉 상황도 2(11.19. 02:00~06:00, 노량해전 전개)

먼저 〈그림 4〉 '상황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전의 시작은 노량수로의 좌단부근에서였지만 점차 관음포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하여 조명 수군의 화공전에 견디다 못한 일본군이 관음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관음

포 안에 갇히게 된 사실을 인지한 일본군은 되돌아 나오면서 관음포 입구 부근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게 된다.

그러면 일본군은 왜 관음포 안으로 들어갔을까? 일본군이 관음포 안으로 들어간 이유는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관음포가 매우 깊숙했기 때문에 큰 바다로 오인한 적들이 퇴로인 줄 착각하여 진입했을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둘째는 관음포가 막다른 곳인 줄 알지만 현재의 전세가 매우 불리하므로 관음포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셋째는 두 번째 이유와 같은 맥락인데 이순신의 전술로 인해 일본군은 어쩔 수 없이 관음포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다. 즉 근접전이 계속될 경우 조선수군의 사상자도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적을 관음포 안에 가둬두고 원거리에서 집중 포화를 퍼붓는다는 작전이었다. 그동안의 이순신 전술을 고려해 볼 때 세 번째 가정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그림 5> '상황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음포 입구 쪽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던 일본군은 동이 트자 조선 수군의 기함을 향해서 집중 사격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순신은 적탄을 맞아 전사하게 된다.



<그림 5> 상황도 3(11.19. 06:00~08:00, 이순신 전사 및 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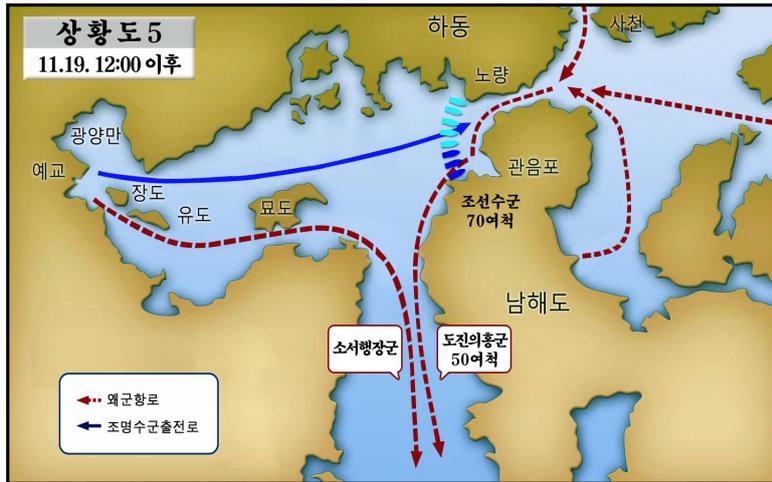
그러면 여기서 이순신도 적을 쫓아 관음포 깊숙이 진입했을까? 결론적으로 이순신의 기함은 진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수백 척의 일본 전선들이 관음포 안으로 진입할 경우 진입 시간이 상당할 것이라고 가정할 때 적선 중 과반수가 진입했을 무렵 이순신의 기함이 진입했다면, 뒤에서 진입하는 일본전선에 의해 포위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노정된다. 그리고 아군과 적군이 함께 엉켜 있으면, 효율적인 화포 공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비록 일부 사료에서 이순신이 선봉에 나서서 관음포의 적을 쫓다가 적탄을 맞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그만큼 이순신이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했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전략전술에 능숙한 이순신은 직접 관음포 안으로는 진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입구 쪽에서 조선 수군을 지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음포 깊숙이 진입한 일본군은 막다른 물목에 다다라 일부는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망하였다. 반면에 대다수는 회항하여 퇴로를 찾고자 죽기를 각오하고 대항해 왔다. 이때 이순신 기함은 관음포 입구에 포진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 상황도 4(11.19. 08:00~12:00, 마지막 격전)

다음으로 <그림 6> '상황도 4'와 같이 이순신이 전사한 후 정오 무렵까지는 관음포 입구 부근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조선 수군은 명 수군보다 선봉에 서서 관음포 입구 부근에서 치열한 격전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명 수군도 혼전을 하면서 힘껏 싸운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선 척수에 비해 일본군을 막는 주축세력은 조선 수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명 수군의 장수는 2명이 전사했지만 군선이 명 수군에 비해 우수한 조선 수군의 장수는 10여 명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상황도 5(11.19. 12:00 이후)

마지막으로 <그림 7> '상황도 5'와 같이 정오 무렵이 지난 후 일본군선 중 50여 척이 남해도의 서쪽 해안을 따라 외양으로 도주하면서 해전이 종료되었다. 이때 예교성의 고니시군은 해전 종료에 앞서 도주했음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 (2) 전사시각 및 전사 시 상황

두 번째 사안으로 이순신의 전사 시각과 피격 상황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당시 이순신이 전사한 시각을 살펴보자.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조실록』에는 11월 19일 巳時(오전9시-11시)<sup>83)</sup>, 『은봉전서』에는 구체적인 시각이 없이 날이 밝지 않은 때라고 하였다. 『징비록』에는 구체적인 시각 표현이 없다. 『백사집』에는 동틀 무렵(黎明)<sup>84)</sup>, 『난중잡록』에는 날이 이미 밝았을 때<sup>85)</sup>, 『상촌집』에는 11월 25일 4경 이후<sup>86)</sup>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행록』에는 11월 19일 동틀 무렵(黎明)<sup>87)</sup>이라고 언급하였고 기타 자료에는 언급이 없다.

이 기록들을 볼 때 이순신의 전사 날짜는 11월 19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상촌집』의 이순신 전사 날짜는 11월 25일로 기록되어 있어 믿을 수가 없으므로 제외한다. 아마도 날짜에 대해서는 착각했던 것 같다. 다른 기록의 경우 11월 19일의 동틀 무렵(黎明)과 날이 이미 밝았을 때로 압축된다. 결국 전사 시각은 동틀 무렵부터 오전 중의 시간대로 볼 수 있다.

83) 『宣祖實錄』 권106, 31년 11월 25일 병오, “陳都督揭帖曰 九十日〔十九日〕自辰時巳時. 而統制使李舜臣, 身先士卒, 中丸而殞.”

84) 李恒福, 『白沙集』 권4, 碑銘 ‘統制使李公露梁碑銘’, “其年冬 賊合勢大來 進至露梁 公自領 銳師 先嘗其鋒 天兵夾進 與公犄角…公於黎明 中丸而顛 猶戒衆諱言死曰 恐我師懼也 提督 聞之 以身投於船者三曰 無可與爲矣 天兵亦却肉不食.”

85) 趙慶男, 『亂中雜錄』 권3, “賊兵殊死血戰勢不能支 乃退入觀音浦 日已明矣 舜臣親自援炮 先登追殺 炮賊伏於船尾 向舜臣齊發 舜臣中丸 不省人事 急命將佐 以防牌支身體使之秘不發 喪 時其子蒼在船 從父分付 鳴鼓揮旗.”

86) 申欽, 『象村集』 권56, “二十四日 賊愁船來戰於觀音浦 戰酣行長乘船從外洋脫去 都督督水 兵鏖殺四川之賊…翌日舜臣中丸卒 麾下士匿不發喪 吹角偃旗 督戰益力 追燒賊船二百餘隻 賊或遁入南海 或從露梁津而走.”

87) 『李忠武公全書』 권9, 李芬撰, 「行錄」, “十九日黎明 公方督戰忽中飛丸 公曰戰方急慎勿言 我死.”

〈표 5〉 사료에 나타난 이순신 전사 시각 및 피격 상황

사료	전사 시각	피격 상황
『선조실록』	19일 사시	· 진린/이덕형 : 탄환에 맞아 운명 · 사신 : 왜적의 탄환에 가슴을 맞아 쓰러짐
『은봉전서』	날이 밝기전	적탄이 가슴아래 관통
『징비록』	언급 없음	날아온 적탄에 가슴을 맞음
『백사집』	동틀 무렵[여명]	적탄을 맞아 넘어짐
『난중잡록』	날이 밝았을 때	총알에 맞고 인사불성
『고대일록』	언급 없음	철환을 머리에 맞아 전사
『상촌집』	25일	적탄에 맞아 죽음
『행록』	19일 동틀 무렵[여명]	지나가는 탄환에 맞음
『난적휘찬』	언급 없음	왜적의 탄환에 맞아 죽음

한편 이순신이 피격된 상황은 모든 사료에서 탄환을 맞은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다만 맞은 부위를 언급한 것을 보면 일부 자료에 머리를 맞았다고 했지만 이는 다른 사료에 비해 신뢰성이 부족한 사료이므로 제외한다. 적탄에 가슴을 맞았다고 언급한 사료는 『선조실록』<sup>88)</sup>, 『은봉전서』<sup>89)</sup>, 『징비록』<sup>90)</sup> 등이다. 그중에서도 전몰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료는 『은봉전서』뿐이다. 따라서 『은봉전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순신의 피격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이순신이 피격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죽기를 각오하고 탈출을 시도하던 일본군이 날이 밝아 오자 이순신이 탄 배의 위치를 알아차리고 집중적으로 포화를 퍼부었을 것이다. 이순신이 비록 판옥선의 장대 속에서 부하들을 지휘했지만, 위치를 가늠한 일본군 저격수들의

88) 『宣祖實錄』 권106, 31년 11월 27일 무신, “史臣曰 出其不意 良久血戰 舜臣親自射倭 而賊丸中胸 仆於船上 其子欲哭 軍心惶惑 李文或在傍 止其哭, 以衣掩其屍 遂鳴鼓進戰 衆皆以爲舜臣不死 出氣奮擊.”

89) 安邦俊, 『隱峯全書』 권7, 「露梁記事」, “賊已知希立所在 乃束丸薺放丸中 甲冑橫犯額骨 希立仆地幾絕 左右告公曰宋某中丸 公大驚起立 丸中腋下 船上驚惶曰 使道中丸.”

90) 柳成龍, 『懲愆錄』 권2, “追至南海界 舜臣親犯矢石力戰 有飛丸中其胸出背後 左右扶入帳中 舜臣曰 戰方急慎勿言我死 言訖而絕.”

집중사격에 의해 피격당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첫 번째 가능성의 연장선상에서 일본군의 집중 사격으로 부하 장수 중 송희립이 먼저 총탄을 맞았고, 이 보고를 받고 놀란 이순신이 굽혔던 몸을 펴던 중 가슴에 피격당한 것이다. 가슴에 총탄을 맞았다는 사실은 이순신이 몸을 엎드린 자세에서 맞은 것이 아니라 상반신을 편 상태에서 맞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의 가능성에 무게를 더 많이 둘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날 이순신 자살설의 근거자료로 제기되는 것으로 이순신이 갑옷을 착용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흔히 이순신이 자살했다는 증거로 李敏敍(1633~1688)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肅宗대에 대제학이었던 이민서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이순신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한 문구가 있어 주목된다.

김덕령 장군이 죽고부터는 여러 장수들이 저마다 스스로 의혹하고 또 스스로 제 몸을 보전하지 못하였으니, 저 광재우는 마침내 군사를 해산하고 숨어서 화를 피했고, **이순신은 바야흐로 전쟁 중에 갑주를 벗고 스스로 탄환에 맞아 죽었으며**, 호남과 영남 등지에서는 부자와 형제들이 의병은 되지 말라고 서로를 경계하였다는 것이다.<sup>91)</sup>

위의 언급은 오늘날 이순신 자살설의 연원이 되고 있다. 특히 위의 인용문에서 이민서가 주장한 '갑주를 벗고 스스로 탄환에 맞아 죽었으며'라는 문구 때문에 자살론자들은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갑옷을 벗고 전투에 임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면 이순신은 과연 갑옷을 벗고 전투에 임했을까?

여기에 대해 앞에서 소개한 관련 자료 중에서 이순신의 갑옷 착용여부에 관해 언급한 자료는 『은봉전서』의 「노량기사」이다. 여기서 이순신이 숨을 거두자 휘하 군관인 송희립은 적탄이 이마를 스쳐 찰과상만 입었기에 간단한 치료를 한 후 장대에 올라갔다. 그리고 이순신의 갑옷을 벗겨 자신이

91) 李敏敍, 『金忠壯公遺事』 권2 '實記', "自將軍之死 諸將人人自疑不自保 郭再祐遂解兵辟穀避禍 李舜臣方戰免曹自中丸以死 湖嶺之間 父子兄弟以義兵相禁戒."

착용한 후 전투를 독려하고 있다.<sup>92)</sup>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이순신은 갑옷을 착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군의 총탄은 조선 수군 장수의 갑옷을 관통하는 살상력을 가졌음은 이순신이 1592년(임진년) 5월 29일의 사천해전에서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이순신이 자살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당시 이순신의 심정을 문학적으로 피력한 것이지 실제 갑옷을 벗고 자살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 당시는 혼전과 격전이 지속되는 와중에서 송희립의 피격 소식을 접한 이순신이 놀라 몸을 일으키는 순간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이순신뿐만 아니라 10여 명의 장수들이 전사한 점에서도 추정할 수 있다.

### (3) 사후처리 및 전사 후 운구 경로

다음으로 이순신 사후의 상황처리를 누가 담당했는가 하는 것이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조실록』에는 사관이 논한 부분에는 이문욱(손문욱의 誤記)이,<sup>93)</sup> 권율의 장계에는 손문욱이,<sup>94)</sup> 형조정랑 윤양의 보고에는 송희립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손문욱은 마침 그때 함께 있다가 자신이 처리한 것으로 잘못 전달되었다는 수군들의 불만을 반영하고 있다.<sup>95)</sup> 『은봉전서』에는 앞에서 살펴본것처럼 將佐 몇 사람과 가족, 그리고 송희립이 알았고, 송희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sup>96)</sup> 『징

92) 安邦俊, 『隱峯全書』 권7, 「露梁記事」, “希立令將佐數人扶持掩口止哭 解公甲冑以紅氈裹尸又裹以草茆乃着其甲冑 掩坐茆上代執旗鼓促戰.”

93) 『宣祖實錄』 권106, 31년 11월 27일 무신.

94) 『宣祖實錄』 권107, 31년 12월 18일 기사.

95) 『宣祖實錄』 권109, 32년 2월 8일 무오)에는 형조좌랑 윤양이 “노량의 전공은 모두 이순신이 힘써 싸워 이룬 것으로서 불행히 탄환을 맞자 군관 송희립 등 30여 인이 喪人의 입을 막아 곡성을 내지 않고 재촉하여 생시나 다름없이 兪角을 붙여 모든 배가 주장의 죽음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승세를 이루었다. 저 손문욱은 하찮은 줄개로 우연히 한 배에 탔다가 자기의 공으로 가로챘으므로 온 군사의 마음이 모두 분격한다하였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96) 安邦俊, 『隱峯全書』 권7, 「露梁記事」, “希立聞之乃起坐則幸賴額破而不犯腦漿以此厲氣流血被面衣前盡濕乃裂衣裹額卽上將座則公已氣絕子蒼將哭希立令將佐數人扶持掩口止哭解公甲冑以紅氈裹尸又裹以草茆乃着其甲冑掩坐茆上代執旗鼓促戰.”

비록』에는 이순신의 조카 완이<sup>97)</sup>, 『난중잡록』에는 아들 회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98)</sup> 『행록』에는 회와 완, 종 금이 세 사람이 있었고, 회와 완 중의 일인이 기를 휘둘렀다고 하였다.<sup>99)</sup>

따라서 위의 기록들을 볼 때 당시 이순신의 죽음을 송희립 등의 군관과 손문옥 등의 일부 장좌, 그리고 아들 회와 조카 완 등이 함께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여기서 전투 경험이 많고 전략가이기도 한 송희립이 대신 독전을 했을 것이고, 제반 사후처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송희립은 군관으로서 임진왜란 초기부터 종전 시까지 이순신을 보좌한 유능한 장수였다. 그리고 임진왜란 종전 후에는 조정으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아 광해군대에는 전라좌수사까지 역임한 인물이다.<sup>100)</sup> 다만 당시 일본어에 능숙하여 通事 임무로 이순신 기함에 승선해 있던 손문옥은 명군과의 연합작전을 수행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sup>101)</sup> 특히 도원수 권율이 손문옥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었던 점과 앞에서 언급했듯이 해전이 종료된 후 진린이 남해도의 산에 불을 질러 패잔병과 함께 조선 백성들도 피해를 입었을 때 손문옥이 진린에게 직접 이러한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청하여 피해를 줄인 점을<sup>102)</sup> 볼 때 대명군 관계에서 손문옥의 역할도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97) 柳成龍, 『懲愆錄』 권2, “舜臣兒子莞 素有膽量 秘其死 以舜臣令 督戰益急 軍中不知也.”

98) 趙慶男, 『亂中雜錄』 권3, “舜臣中丸 不省人事 急命將佐 以防牌支身體使之秘不發喪 時其子蒼在船 從父分付 鳴鼓揮旗.”

99) 『李忠武公全書』 권9, 李芬撰, 「行錄」, “公曰戰方急慎勿言我死言訖而逝時公之長子蒼兄子莞執弓在側掩聲相謂曰事至於此罔極罔極然若發喪則一軍驚動而彼賊乘之尸柩亦不得全歸莫若忍之以待畢戰乃抱尸入於房中惟公之侍奴金伊及蒼莞三人知之雖親信宋希立輩亦未之知也仍麾旗督戰.” 여기서 송희립 등도 알지 못했고 이순신의 조카 완과 큰 아들 회가 주도적으로 사후 수습을 단행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찬자가 이순신의 조카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집안 인물의 활약상을 부각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100) 崔長明, 「임진왜란 종전 후 이순신 막하인물의 활동」 『이순신연구논총』 7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6, 88쪽.

101) 지난 2010년 7월 3일에 방영된 역사스페셜에서는 이순신 사후 손문옥이 부대를 지휘하였다고 언급하였지만 이는 당시 군사체제 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개 통사가 부대를 지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02) 『宣祖實錄』 권107, 31년 12월 7일 무오.

〈표 6〉 이순신 사후처리 관련내용 종합

사 료	사후처리 담당
『선조실록』	· 사신 : 이(손)문옥이 울음을 멈추게 하고 복을 치며 진격 조치 · 도원수 권율 : 손문옥 등이 임기응변으로 잘 처리 · 형조정랑 윤양 : 군관 송희립 등 30여 인
『은봉전서』	군관 송희립
『징비록』	조카 완
『백사집』	언급 없음
『난중잡록』	아들 회
『고대일록』	아들 아무개
『상촌집』	휘하 군사들
『행록』	말아들 회, 조카 완
『난적휘찬』	아들과 조카

한편 노량해전이 종전된 후 이순신의 시신은 약 3일간 현재의 남해 충렬사 부근에서 머물다가<sup>103)</sup> 당시 통제영이던 고금도로 운구되었다. 이후 고금도에서 며칠간의 수습절차를 거쳐 집안 인물들에 의해<sup>104)</sup> 육로로 운구되어<sup>105)</sup> 12월 중순경에 아산 본가에 안치된다.<sup>106)</sup> 그리고 당시의 장례 관습

103) 약 3일간 일본군 잔당에 대한 소탕작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전투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이순신의 시신은 노량포구에 정박 또는 육지에 안치되어 기다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기념하여 현재 남해 충렬사에는 가묘가 조성되어 있다.

104) 李恒福, 『白沙集』 권4, '故統制使李公遺事', "南民間公之喪 奔走巷哭 市者爲之罷酒 及家人以葬歸 南中士子 操文以祭 老幼遮道而哭 至界上不絕."

105) 『燃藜室記述』 17, '宣祖朝故事本末 水陸東征倭賊撤還 十九日四更條', "南民間(李)舜臣之喪 奔走巷哭 市者爲之罷酒 喪歸 南中士子 操文以祭 老幼遮道而哭 至界上不絕 明兵亦却肉不食." : 『宣祖修正實錄』 권33, "我軍與天兵 聞(李)舜臣死 連營慟哭 柩行所至 人民皆設祭 挽車而哭 車不得進 朝廷贈右議政." 이러한 기록을 통해 볼 때 이순신의 운구가 해로가 아닌 육로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진다.

106) 『宣祖實錄』 권107, 31년 12월 11일 임술, "禮曹啓曰 云云事 傳教矣 鄧總兵致祭官 則已爲差出 近當下去 而聞李舜臣喪柩 已離身死之地 將到牙山葬所 不與鄧喪 同在一處云." 이미 12월 11일 기록에 이순신의 시신이 아산에 도착한다고 되어 있어서 12월 중순경에는 아산 본가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 따라 3개월 장을 치른 후 이순신의 시신은 1599년 2월 11일에 아산 금성산 자락에 안장된다.<sup>107)</sup> 이후 15년이 지난 1614년에 현재의 아산 어라산 묘소에 이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4. 맺 음 말

이상에서 정유재란기 조명 수군간 연합작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이자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아울러 이순신이 전사한 해전이라는 점에서 이순신의 전사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사안별로 분석해 보았다.

우선 노량해전은 임진왜란 시기 조선 수군의 유일한 연합작전이었다. 따라서 당시 작전 통제권을 가진 명 수군 도독 진린과의 원활한 지휘체계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었다. 여기서 이순신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여 진린이 이끈 명 수군을 전투현장에 이끌어 내었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노량해전에서 승리를 이루었다. 아울러 노량해전의 승리에는 이순신의 전략적 판단과 전술구사가 기여한 바가 컸다. 이를테면 이순신이 미리 기동하여 작전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였던 점과 일본군을 관음포 내해로 유도하였던 점 등은 해전 승리의 핵심적 전술이었다.

아울러 이 해전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부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임진왜란 7년전쟁의 마지막 해전을 크게 승리로 이끌면서 침략국 일본에 대한 복수적 의미가 부여되었다. 아울러 주변국들에게 조선 수군의 우수성이 크게 각인되었고, 동시에 명 수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아가 이 해전에서의 큰 승리는 전쟁의 참상에

107) 『經國大典』 권3, 「禮典」 '喪葬'에 의하면 '4품 이상의 관리는 3월장(三月而葬), 5품 이하의 관리는 달을 넘겨서 장례를 치른다(踰月而葬)'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정1품이었던 이순신은 죽은 달(11월)을 빼고 3월, 즉 후년 2월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예법에 맞다고 본다.

망연자실해 있던 조선백성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은 전사하였다. 이순신 전사 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사해역과 전사시각, 피격 시 상황, 그리고 이순신 사후처리를 누가 담당했는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는 당대의 자료들과 해전의 경과를 결합하여 추정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들테면 전사해역은 관음포 입구 부근으로 볼 수 있고, 전사시각은 아침 동틀무렵 전후로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순신은 일본군이 쏜 탄환을 왼쪽 가슴에 맞았으며 이때 그는 갑옷을 착용하고 있었음이 명확하다. 여기서 이순신은 자살했는지 전사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된다. 당시의 상황을 봐서 이순신은 자살했다고 보기 어렵고 우발적으로 몸을 일으키는 순간에 적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세간에서 이순신의 자살설을 주장하는 것은 이순신의 당시 심정을 이해하려는 배려에서 나온 문학적 표현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순신이 전사한 후 사후처리와 전투 지휘는 기함에 타고 있던 군관 송희립이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명군과의 협조관계는 손문육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가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취하지 않았던 이순신 사후 운구 경로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당시의 명 수군과 일본군의 전투 상황을 기록한 자료가 부족함에 따라 보다 입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이 분야 연구에 대한 보완적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원고투고일 : 2010. 12. 8, 심사수정일 : 2011. 1. 21, 게재확정일 : 2011. 2. 1.)

주제어 : 이순신, 진린, 송희립, 손문육, 노량해전, 조명연합작전, 이순신 전사, 조명 수군, 임진왜란, 예교성(曳橋城)전투

<Abstract>

## A Study on the Sea Battle of *Noryang* and the Circumstances around *Yi Sun-sin's* Death

Je, Jang-myung

This paper points out the meaning of the Sea Battle of *Noryang* further, therefore, it is aimed for the raw circumstances of admiral, *Yi Sun-sin* who had lead the battle to defeat and the very moment passing away at the battle. This is because while the sea battle of *Noryang* has yet to be generally estimated, there are hypotheses scattered out about *Yi Sun-sin's* death. It has been asked a proper time to clear up the reality of admiral, *Yi Sun-sin's* death and the sea battle of *Noryang*.

The purpose and the intentions of this paper would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the sea battle of *Noryang* was the only *Joseon* and *Ming* Combined Forces Operations during the *Imjin* War. Hence, it was the most significant issue to have capable directions of the *Ming* commander, *Chen Lin* who operated the rein. *Yi Sun-sin* derived the *Ming Navy* which were lead by *Chen Lin* to the battle with his excellent leadership. Furthermore, what he had credited by *Chen Lin* with building *Yi's* willingly cooperated manners resulted the Sea Battle of *Noryang* a complete victory. *Yi Sun-sin's* brilliant tactics and strategy were one of the reasons for the success on the Sea Battle of *Noryang*. For instance, his superlative strategy to settle on a prior occupation and to entice the Japanese Forces to *Noryang* Strait were an extraordinary strategy of the victory.

In addition, this victory of the battle meant a lot to let the neighbor countries know the superlative of the *Joseon* Naval Force, of course

dismissing the Japanese Forces which attacked the *Joseon*. The image toward *Joseon* of *Ming* turned to be amenable in the meantime. Furthermore, this victory of the battle gave ordinary citizens who were slumping down consoled a lot as well.

*Yi Sun-sin* died at the sea battle of *Noryang* meant so much. I have analysed the surroundings of *Yi Sun-sin*'s death: the sea and the time of *Yi*'s death, the situation of the shooting, and who reinforced after the death.

According to the research, *Yi Sun-sin*'s death area could be considered nearby the way in *Gwaneumpo*, and the time of death is highly regarded at dawn. A stray bullet by one of Japanese Forces had struck him high on the left side of his heart and eventually pierced it, and it is certain that *Yi* had been wearing an armor. By the time it is skeptical that he was committed suicide but he was shut bounding up himself unintentionally. The captain, *Song Hui-rip* who had been at the flag ship took over maintaining *Yi Sun-sin*'s death and assured the command during the battle being waged. The cooperations with Ming leaders were on *Son Mun-wuk* in the meantime.

Key Words : *Yi Sun-sin*, *Chen Lin*, *Song Hui-rip*, *Son Mun-wuk*, The *Joseon-Ming* Combined Forces Operations, the Death of *Yi sun-sin*, the Naval Forces of *Ming* and *Joseon*, The *Imjin* War, The Battle of *Yegyo* Fortress